



금융생활에 필요한 모든 정보, 인터넷에서 「파인」 두 글자를 쳐보세요

“금융은 튼튼하게, 소비자는 행복하게”

	보 도 자 료			 국제범죄정보센터 (T. 111)
	보도	2019. 12. 12.(목) 석간	배포	
담당부서	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	이성호 팀장(3145-8521)	장종현 선임(3145-8534)	
	경찰청 수사과 경제범죄수사계	김태현 경정(3150-2168)	김태훈 경위(3150-1778)	
	은행연합회 소비자보호부	손경애 부장(3705-5040)	이승준 대리(3705-5044)	

제 목 :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에 단순 가담한 외국인도 처벌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!

- 국정원·금감원·경찰청·은행연합회, 외국인 대상 보이스피싱 범죄예방 공동 홍보 실시 -

- 국가정보원·금융감독원·경찰청·은행연합회는 국내법에 어두운 외국인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예방홍보를 강화하고,
- 외국인에게 통장 개설시 금융거래목적 확인을 철저히 하는 한편, 외국인의 통장 양도·매매 단속도 강화할 계획

I. 보이스피싱 수법 개요

- 최근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이용되어 피해금을 인출·전달하려다 검거된 사례가 발생
- 검거된 외국인은 인터넷 사이트, SNS 등을 통해 ATM에서 인출·송금을 해주면 일정금액을 준다는 광고를 보고 가담하였으며
- 사법당국의 처벌을 받고 일정기간 교정시설에 수감된 후 강제 출국된 사례도 발생

외국인의 보이스피싱 가담 사례

- **【인출책】** 중국 국적 A씨(20세, 무직)는 지역 생활정보지를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 중간책의 지시에 따라 택배·무인보관함 등을 통해 전달받은 다량의 현금카드로 ATM기에서 현금(피해금)을 인출하여 전달
- **【송금책】** 필리핀 국적 B씨(23세, 회사원)는 해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SNS를 통해 전달받은 이름, 주민등록번호, 계좌번호로 ATM기에서 현금(피해금)을 타인에게 무통장 입금

II. 외국인 대상 범죄예방 홍보 및 통장 양도·매매 주의 안내 방안

1. 외국인 밀집지역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홍보 스티커 부착

-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에 있는 금융회사의 무인점포 또는 ATM에 타인을 대신한 현금 인출 전달 또는 송금은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는 내용의 범죄예방 홍보 스티커·포스터를 부착 (‘19.12월중)

【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스티커 】

“ 혹시 다른 사람의 지시·부탁을 받고
아래의 행위를 하고 계십니까? ”

타인의 카드·통장을 이용한 현금 인출이나,
타인 신원을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을 대행하는 일은
보이스피싱 범죄일 수 있습니다.

您是否被别人的指使或嘱托下从事下列行为?
用他人信用卡或存折取款, 用他人身份代理
无折存款有可能是电话诈骗犯罪。

금융감독원
FINANCIAL SUPERVISORY SERVICE

은행연합회
KOREA FEDERATION OF BANKS

국가정보원
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Korea

2 외국인 대상 통장 양도·매매 주의 안내 강화

- 금융회사는 외국인이 통장을 신규 개설하는 경우 여권 및 외국인 등록증으로 신분 확인을 하고, 금융거래목적 및 국내 주소·거소 확인서류를 제출받는 등 통장 개설절차를 엄격히 이행하고 있으며
- 외국인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지 않도록 출국시 통장 양도·매매를 하지 않도록 주의 안내를 보다 강화할 예정
- ※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통장(예; 잔액 1만원미만 1년이상)은 거래중지 계좌로 분류하고 있으며, 거래중지 해제를 위해서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토록 운영중 ('19.1.~10월중 외국인 명의 보이스피싱 사기이용계좌는 2,234개 발생)

III. 금융소비자 유의사항

■ 최근 사범당국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사회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피해금 단순 전달책에 대해서도 피해규모, 대가수수, 반복 가담여부 등을 고려하여 엄중히 처벌하는 추세임

- SNS 또는 메신저 등을 통한 '고액 현금 알바', '심부름 알바', '택배 알바' 등의 광고는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·전달책 모집광고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유의할 필요
-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ATM 등에서 타인의 카드로 현금을 인출·전달하거나 타인에게 무통장 송금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주의할 필요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<http://www.fss.or.kr>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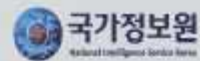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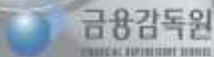
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그일이
 你正在做的有可能是
보이스피싱일 수 있습니다
 电话诈骗

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을 전달하고 있진 않으신가요?
 是不是在转交电话诈骗犯罪受害金?
이런 아르바이트를 조심하세요!!
 小心这样打工!!!

다수의 카드·통장을 이용,
 利用一些信用卡或存折,
 현금을 인출한 후 타인에게 전달하는 업무
 取款后转给他人的业务

타인의 이름·주민등록번호를 이용,
 利用他人的姓名或身份证号码,
 현금을 특정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업무
 到特定帐户无折汇款的业务

보이스피싱은 단순 가담만으로도 징역형을 받습니다.
 仅单纯参与电话诈骗就被判有期徒刑。
억울하게 동원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.
 请注意冤枉地被动员。



참고**보이스피싱 외국인 사기이용계좌 현황**

- **(외국인 사기이용계좌)** '19.1~10월 중 발생한 외국인 명의의 사기이용계좌는 2,234개로 전체 사기이용계좌(54,364개)의 **4.1%** 수준
* 월별 외국인 사기계좌 비율 : (7월) 5.7% → (8월) 4.5% → (9월) 5.1% → (10월) 4.7%

- **(연령대별)** 30대 이하 사기이용계좌 비중은 내국인 명의 계좌가 39.9%인 반면 외국인 명의 계좌는 **64.4%** 수준

연령대별 사기이용계좌 비중 (단위 : %)

구분	20대이하	30대	40대	50대	60대	70대이상	법인	계
내국인	19.8	20.1	25.8	20.7	6.6	1.0	6.0	100.0
외국인	26.7	37.7	17.2	12.3	5.2	0.9	-	100.0
전체	20.0	20.8	25.4	20.4	6.5	1.0	5.8	100.0

- **(개설시점별)** 계좌가 개설된지 1년이 초과된 사기이용계좌 비중은 내국인 명의 계좌는 79.7%인 반면 외국인 명의 계좌는 **84.1%** 수준

개설시점별 사기이용계좌 비중 (단위 : %)

구분	30일 이내	6개월 이내	1년 이내	1년 초과	계
내국인	7.0	7.0	6.2	79.7	100.0
외국인	1.5	5.6	8.8	84.1	100.0
전체	6.8	7.0	6.3	79.9	100.0

- **(개설지역별)** 외국인 명의 사기이용계좌 개설지역별 비중은 **서울(40.0%)** - 경기(25.7%) - 인천(5.3%) - 부산(3.3%) - 경남(3.3%) 순서

국내 외국인 거주 현황 (17.11월 기준)

-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(주민)은 총 1,861천명이며, 경기 604천명(비중 32.4%), 서울 414천명(22.2%), 경남 116천명(6.3%), 충남 105천명(5.6%), 인천 104천명(5.6%), 경북 84천명(4.5%) 등임
- 국적별 외국인(주민)은 중국 710천명(48.0%), 베트남 147천명(10.0%), 태국 93천명(6.3%), 우즈베키스탄 51천명(3.5%) 등임